

대행 스님

부처 될 수 있는 자격은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다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몸 안에 들어 있는 그 업식이 현실에서 여러분이 사는 고통과 애고와 병고를 바로 스스로 자동적으로 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깥에서 들어오는 세균성이나 영계성 또는 유전성 이런 문제들이 다가오고 있죠. 그런데 그 문제를 가정에서 어떻게 해야만이 커버를 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만이 이거를 간단하게 처리를 하고 갈 수 있는가,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일거양득, 일거삼득이 됩니다. 첫째는 공부 길이 아주 정법으로, 정의로 들어가니까 옳고, 무슨 이 다리를 거치고 저 다리를 거치고 이거를 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직통 들어간다 이 소립니다. 두 번째는 내 애고를, 전체 애고를 커버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거든지 불바퀴에 넣으면 불에 타 버리는 거와 마찬가집니다. 용광로에다 넣으면 그냥 모두가 녹아 버리듯 말입니다. 또 세 번째는 그렇게 되면 위로 묵은 빚도 갚을 수 있고 아래로는 햇빚도 줄 수 있고, 또 부부도 편안하게, 가정을 다복하게 이끌어 갈 수 있다 이 소립니다.

우리 가정을 빼놓고 우리 삶을 빼놓고 이 부처님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고부터 부처님도 알았고 상대성의 원리도 알았고 사랑도 알았고, 천차만별로 벌어지는 생활이 어떻다는 것도 알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자체 내에서 모두 여러분이 태어나지 않으셨더라면 그 어떤 것도 무효입니다. 없습니다. 태어났기 때문에 고도 있고 업보도 있고 유전성도 있고 영계성도 있고 세균성도 있고 인과성도 있고, 이 모두가 붙어 돌아갑니다.

이러니 이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냥 헛듣고 헛넘기지 마세요. 나도 이거를 탐지하고 실험하느라고 십여 년이 걸렸습니다. 책이나 읽고, 즉 조사들의 뒷발자취나 따라다니면서 배운 것이 아닙니다. 아마 내 생을 다해서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인생이란 한 철 나고 누구나가 다 갈 것인데 이 한 철을 다 마치기 전에 내 아픔과 딴 사람 아픔과 모든 사생의 아픔이 다 같은가 안 같은가 이것도 검토 많이 했고요. 그러니 그 고가 어디서 오는가? 모두 죄가 있어서 오는 게 아닙니다. 몰라서 죄를 짓지 알면 죄를 짓지 않죠. 모르는 게 죄입니다. 세상에 어느 누가 자기를 긁어서 부스럼 내려고 하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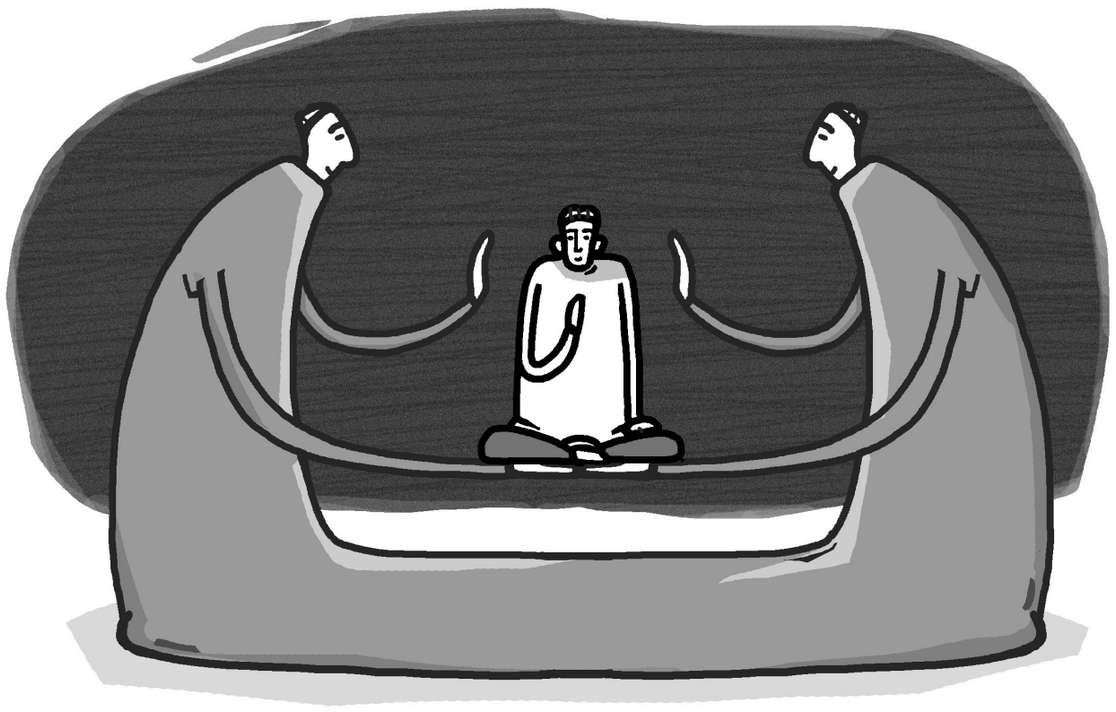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하지만 모르기 때문에 다 그렇게 짓는 거죠.

우리가 보통 '화두를 누구한테서 받는다' 흔히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는 화두를 받는 그것도 직선적으로 들어가는 게 못 됩니다. 왜 그런가 얘기해 볼까요? 화두를 받았으면 받았다는 생각을 항상 하게 됩니다. 뇌리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어느 스님한테서 받았으면 어느 스님한테서 받았다는 그 생각이 항상 떠오르게 돼 있습니다. 받았으면 그냥 자기로 돌리고 말면 될 텐데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화두라는 것을 딴 데서 받아서 직선적으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모르든 알든, 진짜든 가짜든, 못났든 잘났든 바로 내 속에 내가, 이끌어 가는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하나님!" 하고 "주여!"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나 가톨릭교나 이런 데서도 "주여" 하고선 자기 내면을 찾지 않고 항상 바깥을 건너다보고 찾아요. "하나님!" 하면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저 위로 보고 찾습니다. 이 세상에 내가 없이 어디 하나님이 있고 내가 없이 어디 주인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신부님이나 목사님들이 이 불경을 많이 찾습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나는 한술 더 떠서 "못났든 잘났든 자기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현실에 이렇게 애고와 병고와 가난을 면치 못하니, 바로 그 속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 속에다 다시 놔라. 그러면 다시 입력이 되고 앞서 입력된 건 없어진다." 이렇게 말하는 데 이 소리도 못 믿고 못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이렇게 떠 잡수시라고 이렇게 받쳐서 들고 이래도?

그렇다면 제일 시급한 게 병인데 병원에 가든 안 가든, 가는 것도 법 안 가는 것도 법입니다. 물론 가야만 할 때는 가야죠. 안 가도 괜찮을 때는 안 가도 괜찮죠. 그건 자기의 마음에 따라서니까요. 그만큼 광력을 발휘할 수 있다면 안 가도 괜찮고, 자력과 광력, 통신력, 전력 이것이 발휘가 되는 그런 사람이라면 안 가도 좋죠. 하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는 가도 법, 안 가도 법입니다. 그거는 여러분의 자유니까요. 필연적으로 가야만 할 것은, 뭐 부러지거나 어디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 병원엔 가야죠. 그러나 병원에 갈 때 가더라도 모든 것을 거기다 맡겨 놓고 '당신의 손이 그 의사의 손이 될 수 있다' 고 완전히 믿었을 때 그건 아예 50%를 가야 할 길을 단 10%도 안 가요.

화두 얘기 하다가 어디로 그렇게 빙빙빙빙 돌아서 달아나갑니까? 하하하. 그러니까 그저 듣는 분들이 생활의 요지를 건져서 쓰십시오. 내가 화두인데, 각자. 내가 화두입니다, 각자. 그런데 이 화두를 또 들고 '이게 무엇일꼬?' 한다면 속의 맛은 영 한 번도 못 볼 거예요. 수박을 놓고 딩글딩글 굴리면서 '이게 뭘꼬? 이거 무엇일꼬?' 하고 굴려 봤던들…, 아무 소리 없이 턱 잘라서 맛을 보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아주 시원하고요. 질질 끌지도 않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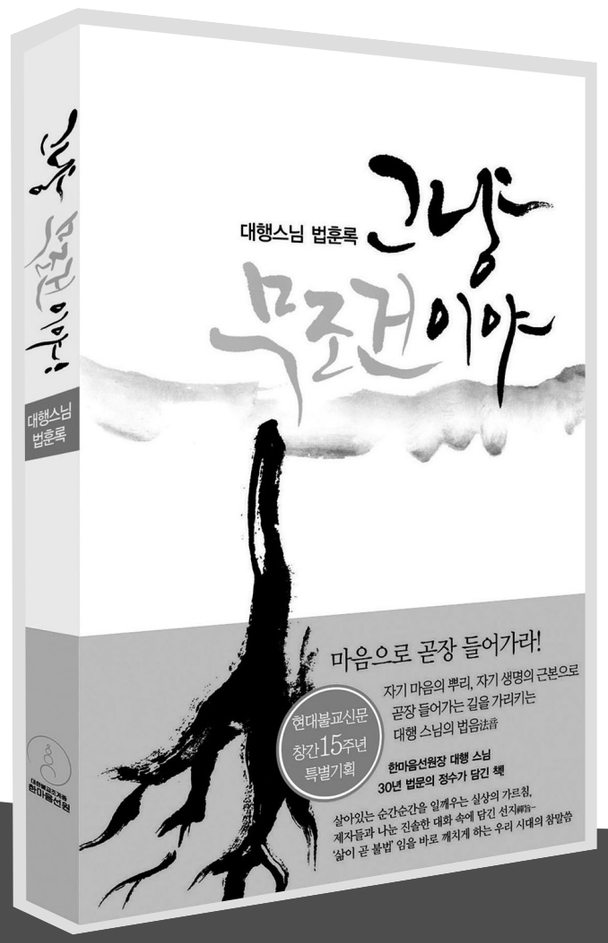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하면서 신행담을 써 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이 살아나가시는 데 많은 재료가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저 스님은 왜 부처님 말씀은 안 하시고 저러나?' 이러지마는 부처님 법 아닌 게 하나도 없고 여러분이 말씀하신다고 하더라도 부처님 말씀 아닌 게 없어요. 또 우리가 한문으로 예전의 용어를 가지고서 주욱 해 놓은 거를, 그걸 가지고서 지금 자녀들한테 얘기를 해 봤던들 그거 안 됩니다. 지금 택시를 마차라고 그러면 될까요? 마차라고 해서 안 되지 않습니까? 예전엔 마차만 있었으니까요. 그때 당시에는 양쪽 바퀴를 만들어서 그렇게만 했을 뿐이니까요. 그러니 모든 용어가 다 현실적으로 바뀌어야만 되죠. 그래서 반야심경도 천수경도 한문으로 써 놓은 그 말씀을 그대로 마음공부 하는 데에 그냥 쓴 겁니다. 조금도 어긋남이 없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가슴에 닿고 여러분이 알 수 있고, 알 수 없고 이해도 안 가는 그 반야심경은 읽어서 도대체 무슨 맛이 납니까? 그래서 화두도 그렇지마는 옛 조사들의 뒷발자취를 따라간다 하더라도 진짜 나는 못 깨칠 겁니다.

옛날에 부처님도 그대로 말씀하셨고 옛날 조사님들도 그러셨습니다. 말을 금방 하고도 "난 한 마디도 한 예가 없다. 난 한 생각도 한 예가 없다." 부처님께선 49년을 말씀하시고도 난 한 번도 한 예가 없다는 겁니다. 왜 한 게 하나도 없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해서 돌아가면서 찰나찰나 화해서 돌아가는데, 예를 들어서 부처님이 됐다가 법신이 됐다가 화신이 됐다가 이러면서 자꾸자꾸 바뀌 가면서 응신으로서, 천백억화신으로서 모든 중생들에게 응해 주시는데 어떤 중생에게 응해 줄 때 내가 했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도 한 예가 없고, 한 마디도 한 예가 없고, 한 생각도 한 예가 없다는 얘기죠. 이 도리를 진짜로 아신다면 어떠한 게 가로걸리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몸 떨어지기 전에 이 도리를 알아야 한시름 놓을 판인데, 여러분이 사람으로만 태어나라는 법이 없습니다.

옛날에도 있었듯이 아, 스님들끼리 도반으로 살다가 한 스님이 죽었는데 말입니다, 까치 둥우리로 영혼이 가더랍니다. 그래서 저 놈 어디로 들어가느냐고 그냥 주장자로다가 쳐서 내리고선 자꾸 그 주장자로다 인도를 해서 사람 집으로 들여보냈답니다. 또 한 사람은 스님하고 아주 친밀한 법사였다 합니다. 법사님이 떡 열반을 하셨죠. 연세가 많을 때까지 노고를 마다 안 하고 하셨는데 스님이 보시니까 제비 둥우리로 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장자로 쳐서는 내려 가지고선 몸뚱이 속으로 다시 넣었더랍니다. 그래 다시 살아났죠? 다시 살아나니까 물었더랍니다. 왜 제비 둥우리로 들어갔느냐고 그랬더니 거기가 그렇게 좋더랍니다. 하하하…. 뭐, 삼층집에 그냥 으리으리하더랍니다. 그러니 환상에, 환상에 녹죠. 그러니까 마음의 환상에 녹는단 말입니다.

☞ A18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www.hyunbulshop.com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6길 36, 606호 현대불교 현불샵

가고 옴이 없이 가고 오는 것이 바로 이 마음입니다

☞ A17면에서 계속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살아서 그 도리를 모르면 내 업식에 눌려서 한 발짝도 떼어 놓을 수 없고 또는 빠져 죽을까 봐 못 건너가고 또 타 죽을까 봐 못 넘어가고 이런다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대충 얘기해 드리면서, 여러분 가정에 모두 성취가 있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가정에 이익이 있어야, 이게 이익이 있으라는 그 간절한 마음은 여러분이나 아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저께 얘기해 드렸죠. 구름이 한데 모였다 흩어지면 또 딴 구름하고 모이고, 수억겁 광년을 거치면서 이렇게 진화돼서 이렇게 모였다 흩어지고 모였다 흩어지니까 나중에 모두 총 계합을 해서 보니까 네 부모 내 부모 네 자식 내 자식이 없더라고요.

그러니 첫째, 이 공부 하실 때는 가정에서도 그렇고 남들하고도 그렇고 남을 나쁘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나쁘게 하더라도, 나는 우리 스님네들더러도 항상 그럽니다. "네가 잘못했든 잘했든 네가 이 세상에 나온 탓이지 네가 없었더라면 누가 부딪치겠느냐. 그러니까 네 탓으로 돌려라. 두 번째는 모든 게 어떠한 문제라도 고정된 게 하나도 없다. 잘못했으면 잘할 수도 있고 잘했으면 잘못할 수도 있다. 항상 잘못하라는 법만은 없다. 그러니까 고정된 게 하나도 없으니 잘할 때까지 또 두고 봐라. 그러면 대번, 대번 돌아간다. 바로 여기다 맡기고 마음을 내 준다면 내 마음과 같이 돌아간다. 같이 불이 들어온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리고 남이 이러든 저러든 눈 똑바로 뜨고 귀 똑바로 세우고 냄새를 똑바로 맡고 생각을 똑바로 해서 이 모든 업식에 본이 되게 생각을 하십시오. 그래야만이 외착이 없으니까. 감히 병고도, 어려운 병고는 오지 않을 것이고, 병고가 났다 하더라도 병고가 없어질 것입니다. 이 모두가 다 남을 해(害)하게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 도리를 찾으려면 아이고, 십만 팔천 리입니다. 하하하….

그래서 그 도리를 진짜로 그렇게 해서 실천을 하라는 거지,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는 실천궁행하라는 그 요지를 내리신 거지 "너희들 죽어서 천당에 가니까 그렇게 믿어라." 이런 건 아닙니다. 살아서 천당 맛을 보고 살아서 지옥 맛을 보고 살아서 삶의 보람을 알고,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만 사람답게 사는 건지도 알게 되고 이런 걸 가르치신 거지 아니, 죽어서 승천하라고, 천당에 가라고 가르치신 겁니까? 세세생생에 끝 간 데 없이 영혼 삶에 이르기까지 길을 인도하신 거죠.

우리 인간에게는 각자 모두가 지 수 화 풍, 네 가지 요소로 돼 있는 겁니다. 일체 만물이 다 요소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물컵을 들어 보이시며) 이것도 지수화풍으로 만들어진 거죠. (컵받침을 들어 보이시며) 이것도 그렇고요. 지수화풍이 안 들어간 게 하나도 없어요. (법상을 가리키시며) 이것도 그렇고요. 흙과 물과 또 바람에 말리죠? 불에 굽죠? 그러니 우주의 개공이 (컵받침을 들어 보이시며) 여기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도 지 수 화 풍, 바로 네 가지가 대두돼 있는 걸요. 이렇게 알기 쉽게 이렇게 해 드리는데도…. 그래 우리가 물이 없으면 전력을 끌어올 수 없듯이 우린 항상 지수화풍이 대두돼 있기 때문에 광력이나 전력이나 자력이나 통신력이 충만히 여러분한테 주어져 있다 이 소립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아이고, 기가 떨어졌어. 난 못 살겠어.', '난 못 살겠어. 나는 죽겠어.' 그 생각밖에는 안 나겠죠? 들어야 나죠, 들어야! 먹어 보고 들었어야 생각이 나죠. 안 그렇습니까? 들어 보지도 않고 먹어 보지도 않고 맛도 모르는데 어떻게 생각이 납니까? 또 생각한다면, 그렇게 돼 있는데도 자꾸자꾸 그저 조금만 기운이 없어도 '나 죽겠다.' 아, 기운이 조금 없으면 기운을 발휘해서 좀 넣고 기운이 너무 많으면 좀 빼고 아, 이렇게 자유스럽게 살지 아니, 그놈의 거 그렇게 어렵게 살아서 어떻게 합니까? 다리가 아프면 '야, 네 시자인데 네가 건강하게 해 가지고 끌고 다니지 누구 몸뚱이기에 그러느냐.' 그러고선 거기다 뚝딱 맡겨 버리는 거야. 내 몸뚱이가 내 몸뚱이가 아니거든요. 그 마음의 주인 그놈의 시자죠. 그리고 돈, 보석이 있다면 관리인이고요.

그러니 관리인으로서 충만히 100%를 다할 생각은 안 하고 내 거라고 붙들고는 그냥 100%를 하려고 그러니 이놈의 게 고장이 나도 이만저만이 아니죠. 그렇게 100%를 관리인으로서 한다면 아마 오붓하게 모일 겁니다. 그러나 내 거라고 움켜쥐고선 모으려고 그러면 허, 요리로 빠져나가고 저리로 빠져나가고 요리로 나가고 저리로 나가고 이것 빼고 저것 빼니까 남는 게 없어요. 왜 가난한 줄 아십니까? 마음이 부자면 집안도 부자예요. 마음이 부자가 못 되는데 어떻게 부자가 되겠습니까? 돈도 그거를 알아요. 돈이 너무나 잘 알죠. 그 마음을 읽어 버리니까요. 들어가려다가도 '에이, 난 저 집은 안 들어가.' 그러면 돈 받을 것도 못 받아요. 안 받아져요. 그래서 어떤 집엔 "거기다가 놓고 '주인의 돈이니까 주인밖엔 받을 수 없다'고 그래라." 어떤 땐 그러죠. 하도 딱하니까.

이 광력이나 자력, 통신력, 전력이 우리한테 얼마나 좋은가를 한번 또 들려 드릴까요? 이 안에서 고장난 거는 안에서 광력을 쓰고, 우리가 눈과 귀와 냄새와 결정과 모든 것을 동시에 이렇게 하듯이 왜, 바깥에서 왁작왁작하고 싸우고 그러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결정적인 것도 알고 누가 잘못했는지도 알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 통신력은 왜 있는 줄 아십니까? 가고 옴이 없이 가고 오는 것이 바로 이 마음입니다. 마음으로 오고 가는 것은 천리만리라도 아주 한 찰나에 왔다가 한 찰나에 갑니다.

우리 제자들이 그냥 이래 보여도, 그냥 허술해 보여도 그래도 그거를 쥐고 그 통신력에 귀를 기울이고는 어떡하든지 잘못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스님의 그 요지에 한 치라도 어긋나지 않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떡하면 천 리, 즉 말하자면 한국에 있는 스님과 마음과 마음이 통할 수 있을까. 그건 통합니다. 그래서 가끔, 뭡니까? 천도재를 지낼 땐 반드시 마음과 마음으로 통합니다. "스님, 남의 천도를 시켜 주는데 조금이라도 소홀히 해선 안 되니까 스님, 아셨죠?" 이 소리가 그냥 마음에 와서 딱 닿죠. 그러면 속으로 또 '알았다.' 이러죠. 통신력이라는 게 그렇게 쓰일 뿐만 아니라 또 부처님의 천백억화신이 응신이 돼서 이렇게 나투실 때, "아휴, 나는 이렇게 병고가 있어서 이렇게 애를 씁니다." 할 때에 그냥 정성이 지극하게 이 내면에다 해야 그것도 알아들으시지 바깥으로 믿거나 이래 가지고는 부처님이 알아듣질 못해요. 그래서 달마 대사도 양 무제더러 공덕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음에다가 참 지극하게, 지극한 마음의 불을 켠다면 응신이 되셔서 응해 주시죠. 그게 통신력이에요. 이 통신력이 충만하다면 자력도 또 충만합니다. 모두 여러분이 발견을 못했기 때문에 못 쓰일 뿐이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 될 수 있는 자격은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 서울에서 어느 신도 하나가 차 사고가 났는데 자기는 하나도 다친 데가 없고 자기 친구만 그만 뭐, 허리가 어떻게 됐다나요? 속의 뼈가 부러져서 모두 으스러졌답니다. 그런데 영 깨어나질 않으니까 삼일 만에 전화가 왔어요. 깨어나게끔이라도 해 주시면 어떻겠느냐고. 그래서 "내가 의사야?" 하하하…, 그래 놓고선 "알았어." 그랬는데 얼마 안 있더니 "아, 깨어났습니다." 이렇게 또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 어떡하는지 알지?" "예." 그래요. 남자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깨어난 그 사람 귀에다 대고 '주인공, 당신만이 나를 이끌어 줄 수 있고 살릴 수 있어.' 라고 하라고 그렇게 해 놓고 자기는 마음을 내서…. 그런데 안에서 자기네들이 방사선으로 한다면 얼마나 편리합니까? 네? 안에도 모든 게, 어떤 분야든지 자기 아님이 없는데, 자기 몸뚱이 속에 있는 거 자기 아님이 하나라도 있겠어요? 그렇게 방사선 치료를 해서 이게 또 진이 나오지 않는 걸 나오게 해서 붙이는 데도 자력이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그렇게 마음을 내서 해 줬는데 일주일이 못 가서 그 뼈 부러졌던 게 다 붙었더라는 겁니다. 이건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실험을 해요. 실험을 직접 하는 겁니다, 그냥. 뭐, 누구한테 물어보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실험을 그냥 하는 거예요. 지금 이 기회가 얼마나 좋습니까? 서울에서는 의사들도 많고 박사들도 많고 그런데, 의사들은 의사들끼리 한 회원이 되고 또 박사들은 박사들끼리 한 회원이고, 또는 물리학자들은 물리학자대로 또 한 팀이고 과학자는 과학자대로 한 팀이고 모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의논해서 그 모든 거를 실험하면서 나가니까 그렇게 단수가 높아질 수가 없더란 얘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늙었든 젊었든, 지금 내가 이 앞에서 뒷분이 노래를 하시는 거를 가만히 듣고 웃었습니다. 저렇게 연세가 들었든 안 들었든 그걸 떠나서 노래 부를 때는 다 떠난 겁니다. 떠나서 부르는 노래기 때문에 아주 청정하게 들립니다.

이 광력 전력 자력 통신력이 여러분 앞에 다 주어져 있으니 주저 마시고 어떠한 분야에든, 어떠한 용도에 따라서나 실험을 해 보세요. 비리비리 그냥 남한테나 기대고 그냥 남을 의지하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죽든지 살든지 좀 결단성이 있어야죠. 그래서 그 고비를 어떻게 넘기시려고요? 이 세상 끝 간 데 없이 그 고비를 넘기려면 얼마나 많은 그 시련과 고통이 있겠습니까. 삶의 보람도 없이 말입니다. 또 고생 안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는 게 고생이에요, 알고 보면. "그럼 살지 말라는 얘기죠?" 이럴 테죠? 살더라도 맛을 알고 사시라 이거죠. 이 세상은 일분일초도 쉬지 않고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반야심경 읽으실 때 어떻게 읽으시고 계세요? "색이 공이요 공이 색이니라. 고정됨이 하나도 없이 그냥 돌아가느니라." 여러분이 아무리 무슨 일을 해도, 만남도 보는 것도 듣는 것도 가고 오는 것도 먹는 것도 고정된 게 하나라도 있나 보세요. 그런데도 '내가 했다, 내가 했다' 하다 보니까 인젠 지쳐서 '내가 했다, 내가 했다' 하지도 못하면서 마음속으로만 '내가 이렇게 잘했는데, 내가 이렇게 못했는데, 저놈으로 인해서 망했지. 저놈이 잘못해서 뭘 어떻게 했지' 이러한 생각들을 하고 계시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꿈을 꾸면 꼭 꿈대로 일이 벌어진대요. 그런데 하루는 자기네 기와집 양쪽 대들보가 그냥 무너져 내렸다는 거야. 그랬으니 이건 껌뻑 죽어서 그냥 온 거야. 이건 큰일이 났죠, 뭐. 그래서 내가, 내 말이 그랬습니다. "허! 모든 업보가 모두 부서져서 내리는구나." 하하하. "모든 업보가, 그 업보가 부서져서 내리니까 너희는 좋은 일 있겠다." 그러니까 날 똑바로 쳐다보면서, 어이가 없죠, 인제. 날 봐도 눈초리만 나한테 있지 지금 초점을 잡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무조건이다. 너희 좋은 대로 생각해서 거기 놓는 거지 사람이 생각, 사량으로써 '이건 절대로 사람은 못한다. 이거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못한다.' 이렇게 결정짓지 마라. 할 거든지 못할 거든지, 나쁜 거는 좋게 생각해서 놓을 때 감사하게 놓고, 또 잘되는 거는 잘되는 대로 감사하게 놓고, 자기 주인한테 모든 거를 다 맡겨라." 아, 육신이야 뭐, 끌고 다니다가 훌떡 버릴 거, 허허, 제 육신 제가 훌떡 버리고 또 형성시켜서 훌떡 들어가서 살고 이러는 놈의 거, 뭐….

그래서 이 사람이 한 생각을 잘함으로써 이 세상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수도 있고, 한 생각 잘못해서 창살 없는 구멍에 빠질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살아나간다고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사람이라는 게 자기가 벗어나지 못한다면 부모 빚도 못 갚고 은혜도 갚지 못합니다. 그리고 모든 요소들의 은혜를 어떻게 갚으렵니까? 여직껏 물 주고 공기 주고, 하하하, 흙에서 살고 바람 주고 불 주고 다 한 그 은혜는 또 어떻게 갚아요? 그건 돈 안 받고 주는 거기 때문에 아주 그냥 좋다고 하시겠지만 그게 다 은혜를 갚을 줄 알아야 넉넉하게 나한테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여튼 오늘, 이제 잘 들으셨죠?

대중 가운데서 네.

(다음 호에 계속)

마음이 부자면 집안도 부자예요.
마음이 부자가 못 되는데 어떻게 부자가 되겠습니까?
돈도 그거를 알아요. 돈이 너무나 잘 알죠.

※위 법문은 1992년 6월 21일 뉴욕지원 법회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 9 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4187-0062
전라도 : 010-3511-6682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

미소 조각원

泰煌(태황) : 대한민국 문화재 조각기능 보유자

불사 문의 050-2879-8709
010-3629-8709



9층 석가대탑
조성기간 : 13년 6개월
높 이 : 17미터